지족 스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장정근 기도를 한다.

매 순간 스스로 만족하면…

"상내는 것이 싫어요. 하긴 싫어하는 것도 다 상이지."

기자를 만나자마자 지족 스님은 이 말씀부터 하신다. 오전부터 들이닥친 기자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도 지면에 소개되는 것은 조금 불편해 하셨다. 중간 중간 불편함을 비치시면서도 스님은 불쑥 찾아간 기자를 위해 보이차를 진하게 우려주셨다.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던 지족 스님은 1980년 서울 길동에 정착했다. 이곳이 바로 백제불교 발상지였기 때문이다. 대흥사 뒷산은 성산봉(聖山峯)이라고 불려진다. "전국에 성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몇 군데 없다"는 스님은 성산이 맘에 들어 맨몸으로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거기에 서울의 동쪽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에다가 길동(吉洞)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다. 길상사라고 이름지으려다가 대흥사로 지었다. 대가람을 만들어서 이곳에 오는 납자들이 도를 다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부처님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은혜를 갚기 위해 절을 세웠어요. 강동에서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절로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흥사는 한 번 불탔었다. 1995년 12월 동짓날 새벽 2시 50분. 방화였다. 법당이 불타고 있는 동안 스님은 일심으로 기도했다. "제발 주변 민가에 피해없이 법당만 타고 화마가 물러나라"고. 한겨울에 타오르는 불빛은 이상하게도 오색빛이 찬란했다. 그 불을 보면서 스님은 웃었다. "인연이 없어서 타는 것을 근심걱정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불길은 지하 요사채에는 번지지 않은채 잡혔다. 스님은 수행도량을 세우겠다는 발심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다잡았다.

시멘트로 법당을 다시 지었다. 대가람 중창을 위해 그리고 깨달음을 위해 스님은 오늘도 기도 정진한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실천으로 가르치셨듯 스님도 스스로 기도하고 정진하고 독경하면서 신도들에게 몸으로 일러주신다. 당신이 기도정진하듯 신도들도 기도하며 마음을 담아 참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대흥사 법당은 '대원보전(大願寶殿)'이다. 주존이 지장보살이다.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한 법당을 보고 주변에서 미쳤다고 했다. 당시만 해도 지장보살상은 명부전에나 모시던 때였기 때문. 그때 스님은 "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라도 안 모시면 밥도 못 얻어먹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모셨다.

법당에 들어서면 스님의 자상함을 느낄 수 있다. 각 불상과 불단마다 팻말이 붙어있는 것. '지장보살' '칠성단' '신중단' 등 처음 들어오는 이라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눈 뜨면 일어나고 눈 감으면 자는거지. 난 밥벌레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스님은 매일 새벽 4시의 방과 거실에는 지장보살도, 달마도 등이 즐비하다. "우리 화엄 스님은 중년에 가서야 그림을 그리셨는데 우리 절 현판도 스님이 써주셨어요."

스님도 사실 글씨에 소질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지 않았다. 글씨나 그림에 노예가 되는 것이 싫어서였다. 스님은 그 흔한 유행가 한 곡도 부르지 못한다고 했다.

방 한켠에는 육환장과 불진, 죽엽삿갓이 걸려 있었다. "스님이 삿갓을 쓰고 다니는 것은 깨치기 전까지는 죄인이라 하늘을 못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시는 모습은 정말 죄인 같았다.

스님에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청했다. 스님은 당장 앨범을 들고 와 일일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다. 그 가운데 10여년 전 지유 스님(현재 범어사 조실)과 함께 편안하게 방에 앉아 찍은 사진이 있었다.

"지유 스님은 생불이야. 대한민국 수좌 중에 지유 스님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지유 스님에 대한 자랑이 넘쳐난다. 무소유로 살면서 장좌불와를 실천하는 스님이라는 것이 지족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관세음보살모다라니 주력을 8년 했다. 제방 선방을 다니며 화두선에도 정진했다. 그래서일까. 뭐든지 하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다.

지족 스님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물었다.

"무식이 도를 깨친다고 하잖아요. 무식하면 집중하거든요. 물론 유식하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행으로 실천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염불의 길도 깨달음의 길이요, 참선 화두 드는 것도 그 길입니다.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 불자들도 열심히 근기에 맞게 수행정진하면서 마음을 바로 세우면 성불합니다."

스님은 "나의 법명이 곧 화두"라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면 큰 일을 이룬 것"이라고 웃어 보였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1959년 소백산에서 정진하던 모습.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주력에 매진하던 시절이다.

관세음보살모다라니 8년 주력도 집착할까봐 서화 배울 기회 외면 "무식이 도 깨친다…근기 맞는 수행을"

30분이면 어김없이 아침예불을 드린다. 세수 일흔이 넘었어도 예불을 소홀히 한 적은 없다. 예불 후 두어시간은 꼬박 참선을 한다. 스님은 생활이 곧 수행이고, 수행은 곧 포교인 생활을 하고 있다.

문 앞에 '나무지장왕보살'이 붙어있는 스님 방은 매화 그림이 가득 차 있었다. 전면에는 매화 병풍이, 한쪽 벽면에는 금니매화도가 걸려있었다. 누구의 작품인지 물었다. 은사 화엄 스님의 작품이라는 대답이다.

"우리 은사스님에게 반해서 출가했다"는 스님

태고종 원로의원 내원암 등서 禪수행

지족 스님은 | 1936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954년 경북 상주 남장사에서 한산 화엄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청봉 스님에게 사교를 마치고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문경 혜국사 주지 소임을 시작으로 구미 도리사, 포항 보경사, 울산 내원암 등 선원에서 수행했다. 태고종 원로의원으로 1980년 서울 대흥사를 창건해 현재까지 주석하고 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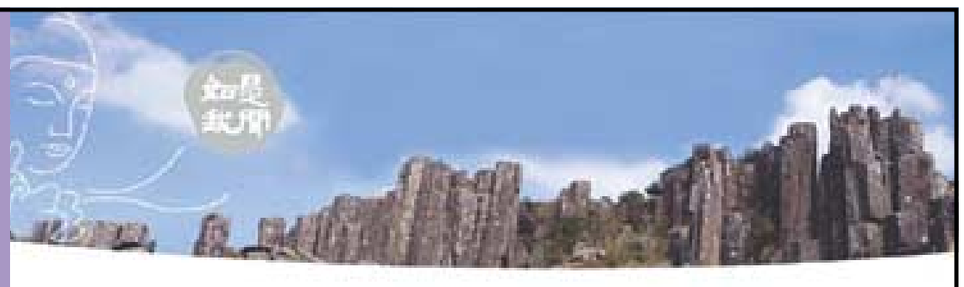
지족 스님 (서울 대흥사 주지)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 (무료배송)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